

컴퓨터 창세기

2025

책 안내

이광근

- 이 책은 반 그림책이다. 출연진은 꼬마 네 명이다: 스저지(?), 비비(-), 방구(**), 임매기(~~).

스저지(?)가 묻고, 비비(-)가 설명하고, 방구(**)는 설명에 시비걸고, 임매기(~~)(나무)는 담담히 의문하거나 참고자료를 안내한다.

이렇게 꼬마들의 문답들로 책을 꾸민 이유는 뭘까?

- 쉬운 말만 쓰기 위해서다. 누구는 물을 수 있다. 과연 일상적인 쉬운 말들로 학술의 끝장을 파는 내용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 수학적 논술의 각잡힌 표정 대신에 길바닥 보통의 정감있는 말로 다 가능할까.

학술에는 학술의 언어가 따로 있는건 아닐것이다. 학술용어가 대개 소리로만 입을 원어나 한문일 뿐인데, 그래야만 정확하고 정밀하고 경제적인 학술이 가능한건 아닐것이다. 영미권의 전문용어들이 평이한 단어들이나 점을 봐도 그렇다.

이 책에선 그런 바람이 분다. 꼬마 캐릭터 넷이 주고받는 단순한 말들. 그런 말들로 문답이 이어진다. 여지없고 치열한데, 그런데 평범하고 쉬운 말들이 다. 꼬마들 문답을 따라가다보면 누구라도 학술의 끝장을 어렵지않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더군다나 반 그림책으로 꾸몄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게 읽게 된다. 오르막 숲 길을 가뿐히 저만치서 안내하는 파랑새 기운. 이런게 이 책엔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꼬마들은 무슨 내용을 파고든걸까?

- “컴퓨터 원조밥집의 모든걸 알아내고 싶다면”

다빈치가 그랬다고 한다, “샘으로 갈 수 있는 자 물병으로 가지 말라.” 근원을 아는 것이 탁월함의 열쇠라는 게 아닐까. 네 명의 꼬마들은 컴퓨터의 근원을 쫓는다. 컴퓨터의 청사진이 드러난 오리지널 원조 논문을 샅샅이 파고드는 이야기가 문답으로 펼쳐진다. 컴퓨터의 근본 원리, 혹은 근본 디자인이 이 이야기에 있다. AI 기술을 꽃피우는 깊숙한 뿌리로서 흔들리지 않는 원천 설계도. 그 설계도를 처음으로 생각해내고 처음으로 활용한 이야기. 그 원조 논문 이야기다. 그리고 그 논문을 쓴 주인공의 마음은 어떻게 흘렀던걸까? 그것을 추적한 꼬마들의 팩션다큐도 곁들어진다.

좋다. 그런데, 이렇게 컴퓨터의 근원을 파고들었다고해서 뭘 도움이 될까?

- “컴퓨터에 대한 초조 혹은 헛헛함이 있다면”

우선, 즐거움이 있다. 원천, 그 뿌리를 직접 캐고 보고 만지고 냄새맡고 씹어보고 맛보고 삼켜보는 재미. 다음으로, 은근한 자양분 몇가지다. 하나는, 핵심을 맛보는 든든함이다. 시초 원천에는 핵심밖엔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능까지 압도하며 나날이 놀라워지고 복잡해지는 컴퓨터 기술에 가려진 핵심. 그 담담한 혹은 담대한 맛. 다음은, 용기를 직관하게 해준다. 애초에 어떤 연유로 그런 원천을 꿈꿨는지, 꿈을 꾸 원죄로 만나는 문제들과 맞서는 기세. 그 현장을 직관했다는 경험치다. 마지막으로, 시초가 혁신인 바, 혁신의 패턴을 구경하게 된다. 이 패턴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므로, 독자 누군가의 몸에 배어 언젠가 타오를 자원이 되지않을까.

차례

1 마음 기계	9
1.1 컴퓨터는 마음의 도구	10
1.2 컴퓨터는 모든 세계를 찢는다	12
1.3 컴퓨터 세계를 단단히 이끄는 밧줄	14
1.4 컴퓨터가 마음의 도구라는 뜻	17
1.5 컴퓨터에게 일을 한 번 시켜봐: 실망	18
1.6 컴퓨터에게 일을 한 번 시켜봐: 무서운 실천	19
1.7 컴퓨터에게 일시키기는 글쓰기야	21
1.8 컴퓨터에게 일 시키기는 글쓰기야: 글쓰는 방법 두 가지	23
1.9 컴퓨터에게 일시키기: 인공지능도 글써서 시킨거야	25
1.10 컴퓨터에게 일시키기: 인공지능도 글써서 시킨거야 다단계로. 처음 엔 사람이	28
1.11 컴퓨터의 신기함: 하나의 컴퓨터로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다는거 . .	31
1.12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의 갯수: 자연수 만큼만 많아	34
1.13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의 성질: 기계적인 일만 가능해	36
2 원천 설계도	39
2.1 컴퓨터 탄생 이야기: 기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	40
2.2 컴퓨터 탄생 이야기: 기계적인 일이란 어떤걸까? 예를들면	41
2.3 컴퓨터 탄생 이야기: 기계적인 일을 정의하려고 한 이유로 돌아가 보자구	44

2.4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들은 강의	46
2.5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 생각의 시작과 스타일	49
2.6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의 정의. 기계적인 방식, 애매해서 정의하 기 어려워	52
2.7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의 정의. 기계적인 방식, 장난감 조립 키트 를 상상하라구	55
2.8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의 정의. 기계적인 방식, 애매한게 전혀 없다구	57
2.9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의 정의. 기계적인 방식, 튜링기계의 작동	59
2.10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의 정의. 기계적인 방식, 튼튼한 정의라구	62
2.11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 증명에서 튜링기계를 글로 쓰는게 필요해	64
2.12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기계를 글로 표현할 수 있어	66
2.13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 증명에 드러나는 컴퓨터의 원천 설계도 .	69
2.14	컴퓨터 탄생 이야기: 컴퓨터의 원천 설계도, 왕튜링기계	72
2.15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기계의 갯수가 자연수 만큼인 이유	75
2.16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하는 증명	76
2.17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하는 증명. 짜릿한 되치기	78
2.18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하는 증명. 튜링기계가 멈춘다, 는 자연 수에 대한 명제야	81
2.19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하는 증명. 되치기 한번더	84
2.20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하는 증명. 모든 튜링기계와 다른 튜링 기계 만들기	87
2.21	컴퓨터 탄생 이야기: 튜링이 하는 증명. 마침표	89
2.22	튜링소년이 한 일이란: 세 개의 기둥을 세운거야	91
2.23	튜링소년이 천재라서? 면밀히 살펴보면 어떨까	93
2.24	설계도대로 컴퓨터 만들기: 스위치로 다 돼	95
2.25	설계도대로 컴퓨터 만들기: 모래로 만드는 스위치 그리고 이진수와 디지털	98
2.26	설계도대로 컴퓨터 만들기: 꼭 스위치일 필요는 없고	100

3 튜링의 마음	103
3.1 튜링은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냈을까? 가 궁금해	104
3.2 튜링이 들은 수업: 괴델의 증명으로 한 발짝	106
3.3 튜링이 들은 수업: 괴델의 증명으로 한 발짝 더	109
3.4 튜링이 들은 수업: 괴델 증명에서 “기계적인”이란	112
3.5 튜링이 들은 수업: 괴델의 증명, 그 정중앙	115
3.6 튜링이 들은 수업: 뉴만 교수의 코멘트. 무한한 뭔가와 관련돼요 . .	118
3.7 튜링이 들은 수업: 뉴만 교수의 코멘트. 사람은 늘 초월할 수 있다?	120
3.8 수강후 튜링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해간 시간들: 첫 발자국 . . .	122
3.9 수강후 튜링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해간 시간들: 두번째 발자국	123
3.10 수강후 튜링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해간 시간들: 세번째 발자국	124
3.11 수강후 튜링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해간 시간들: 네번째 발자국	126
3.12 수강후 튜링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증명을 마치고: 뉴만교수의 응원	128
3.13 튜링소년이 천재라서? 너무 겁주지말기	130
4 마치면서	133

1

마음 기계

1.1 컴퓨터는 마음의 도구

(1.1/1) ?? (봄, 한강 공원 잔디밭에 자유롭게 앉은 스저지, 비비, 방구)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선뜻) 컴퓨터가
모야?

(1.1/2) - 마음의 도구야.

(1.1/3) ?? (두 눈썹을 올리며) 맘대루 쓰는 도구라구?

(1.1/4) - 응 마음먹은대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저렇게 쓰면 저렇게.

(1.1/5) ?? 에이, 컴퓨터를 비오는날 장화로 못쓰잖아. 추운날 입을수도 없구.

(1.1/6) - 그런 세계 말고. 이 세상엔 세계가 많잖아. 그 중 하나의 세계에서. 그 세계
에선 맘가는대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컴퓨터지.

(1.1/7) ?? (고개를 가웃하며) 응? 컴퓨터가 내 맘을 어떻게 알아?

(1.1/8) - 응.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글을 써야해.

(1.1/9) ?? (이를 아물고 입술을 열며) 잉. 나 글쓰기 못하는데...

(1.1/10) - (미소지으며) 어찌지. 글을 써야하는데. 컴퓨터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하는건지 글로 써야해.

(1.1/11) - 그래서 그 글을 컴퓨터에 실으면 돼. 컴퓨터는 그 글대로 그대로 작동하거
든. 그 글은 우리의 지혜를 통과해서 우리가 지어내야 하는 거구.

(1.1/12) ?? (눈을 가늘게 뜨며) 아 그래서 마음의 도구라구 하는거구나!

(1.1/13) - 응.

(1.1/14) ?? 근데 컴퓨터 세계는 좁은 세계아냐? 컴퓨터가 하는 일은 컴퓨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

(1.1/15) - (눈을 반짝이며) 그렇지만 무궁무진해. 우리가 꿈꾸고 상상하는 세계는 무궁무
진하잖아. 그만큼 무궁무진해.

(1.1/16) - 우리 마음의 한계가 컴퓨터 세계의 한계야. 컴퓨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계의 한계는 우리 마음이 정한다고.

(1.1/17) ** (팝짹끼고) 으음... 비비, 뽕 냄새가 솔솔난다. 허풍 냄새.

(1.1/18) - 하하. 방구가 날카로운데. 나중에 정확히 말해줄께. 궁금하다면.

(1.1/19) ?? 맘의 한계가 컴터의 한계라구? 히이...

(1.1/20) - 특히 컴퓨터의 세계는 그 세계에만 머물진 않아.

(1.1/21) - (강바람을 맞으며) 컴퓨터는 모든 다른 세계들과 접속해. 그래서 그 세계들을 찢어놓고 있어. 온 세계를 흔들고 있다고.

(1.1/22) ** (하늘을 보며) 새로운 문명의 새벽을 이끌고 있지.

(1.1/23) - 컴퓨터가 이 세상 구석구석을 흔들어놓고 있잖아. 우린 지금 그 변화를 직접 겪거나 바라보고 있지.

(1.1/24) - 막상 지금 우린 모를 수 있어. 한참 세월이 지나 되돌아보면 지난 100년과 앞으로 100년, 이 200년이 인상적인 시대로 기억될거야.

(1.1/25) ** 아닐 수도 있고. 돌아다보는 감회에는 늘 과장이 따라붙는 법이니까.

(1.1/26) ?? 방구 년 빼박한게 병이라구.

(1.1/27) ?? (비비 앞으로 앞구르기하고는 썸 눈빛으로) 비비, 지금 우리가 큰 소용돌이 정중앙을 건너구 있다구? 신나는데!

1.2 컴퓨터는 모든 세계를 찢는다

(1.2/1) - (바람에 날리는 머리를 잡으며) 컴퓨터라는 도구는 아주 특이해. 모든 도구는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잖아. 컴퓨터라는 도구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 확장범위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광범위해. 한없이. 그런 도구는 인류 역사에 없었다구.

(1.2/2) ?? (꺼어들며) 그래서 컴퓨터가 더 궁금하더라니까!

(1.2/3) - 우리 주변의 모든걸 또 컴퓨터가 감싸고 있잖아. 우린 컴퓨터를 벗어날 수 없게됐다구. 마치 우리가 자연을 벗어날 수 없듯이.

(1.2/4) ** (심각하게) 모든걸 감싼다고? 컴퓨터가 만든 의미망이 모든걸 덮고있다? 어림없는 소리마. 세상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 그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도 너무 많다고 이 바보야.

(1.2/5) - 해해. 내 말이 과장이었다는 거 인정해. 하지만 꽤 사실이야.

(1.2/6) ?? (눈을 가늘게 뜨며) 그래서 학교에서 컴터과목이 필수처럼 된거구?

(1.2/7) ** (팔짱끼며) 누구나 과학과목을 배우는 이유와 비슷한거고!

(1.2/8) - 맞아. 과학교육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해주려는 거잖아. 겁먹지 말라고.

(1.2/9) - 컴퓨터교육도 그런거야. 우리를 둘러싼 컴퓨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시켜주려는거.

(1.2/10) ?? 히. 적절한데.

(1.2/11) ?? (바람이 모는 원구름을 잠시 구경하고는) 그러구, 컴퓨터가 우리의 모든 세계를 찢어놓구 있다구 했지?

(1.2/12) - 응. 스저지, 넌 어쩔 작정이니?

(1.2/13) ?? 걱정? 갑자기 당황되는데!

(1.2/14) ** (비장하게) 파도 자체가 될 작정이라면. 아니면 파도에 올라탈 작정이라면.
노를 들고 키를 잡을 작정이라면. 박차와 고삐를 움켜잡고 싶으면. 아니면 파
도위 뱃길이 될 작정이라면.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팽팽히 흰 흰돛 받쳐주는
성난 바람이 될 작정이라면. 그렇다면 각오해야 할거야.

(1.2/15) - (웃으며) 하하. 방구야, 그렇게 비장할것까지야 있니?

(1.2/16) ?? 방구가 가끔 그럴듯한 말을 해요. 크크.

(1.2/17) ?? (진지하게) 근데 각오는 하구싶어 비비. 신세계로 들어서는 중이니까.

(1.2/18) - (얼굴을 낮게 내리고 비비와 방구를 번갈아 올려 보며) 파도는 계속 더 크게 일어날거야.

(1.2/19) ?? (눈빛에 온 힘이 집중되어 빛난다)

1.3 컴퓨터 세계를 단단히 이끄는 밧줄

(1.3/1) ?? (휘익 지나가는 자전거 라이더들) (두 손으로 턱을 괴고) 근데 좀 불안해! 너무 빨리 변하잖아. 컴퓨터기술.

(1.3/2) ** (팔장끼며) 걸은 늘 화려하지. 사람들은 그 화려한 걸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지.

(1.3/3) - 걸만 보면 혼란스럽지. 피고 지고 반짝이고. 금방금방 변하고. 컴퓨터 새 소식들은 빠르게 흘러가고. 정신없지.

(1.3/4) ?? (넘실대는 강물에 부신 눈으로) 응. 정신없어.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구.

(1.3/5) - 그래서 중요한게 있어. 정신사납지 않고 단단히 준비하는 방법 알려줄께.

(1.3/6) ** (팔장풀며) 오, 뭔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인데.

(1.3/7) ?? (몸을 가까이하며) 몬데? 몬데?

(1.3/8) - 근본을 파악하는거야. 이게 더 쓸만하다구. 컴퓨터 세계의 근본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으면 문제없어.

(1.3/9) ?? (시큰둥해서) 늘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은 듣지만. 급해 죽겠는데 기초를 파구 있으라구?

(1.3/10) - 컴퓨터의 근본, 본질, 기초, 원천. 뭐 그런것들.

(1.3/11) ?? (관심없는 듯) 그런거 파악해서 정말루 모가 좋은데?

(1.3/12) - 본질을 튼튼히 알면 다양한 응용들의 한계와 가능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곳을 볼 수도 있게되구.

(1.3/13) - 그리고 근본을 알려고 뒤로 물러설때 시각의 부채꼴도 넓어지구. 그리고 오래가는 지식이구. 끊기지 않는 밧줄이구.

(1.3/14) ** (난처하며) 걸 껌질에 반응하는 기민함만 쫓을거라면. 금방 끊어질 밧줄을 잡는 셈이지. 그러면 내내 헛헛할거야.

(1.3/15) ** 다빈치가 그랬다지, “쌈으로 갈 수 있는 자 물병으론 가지 말라.” 근원의 쌈을 아는게 많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열쇠라는게 아니겠냐.

(1.3/16) ?? 방구 애는 멋진척이라면 재주가 있다니까.

(1.3/17) - 비유하면 이런거야. 요리를 배운다고하자. 물냉면 요리법을 배워. 짜장면 요리법을 배워. 이 두 음식 요리법만 배우면 본질을 배우는게 아니지.

(1.3/18) ?? 응. 두 개만 요리할 수 있을 뿐이라.

(1.3/19) - 그런데, 인간 몸이 필요로하는 영양소, 지구별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 맛이라는 느낌의 몸안의 생리와 외부 환경의 역할. 온도와 습도가 재료에 미치는 영향. 동물, 식물, 미생물의 세계. 그리고 굽기, 데치기, 찌기, 볶기, 삶기, 치대기, 발효시키기, 튀기기, 졸이기, 다지기, 훈연하기가 과연 뭐하는 건지. 재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건지.

(1.3/20) - 이런 것들이 요리의 본질이지. 이런걸 익혀야 포텐이 생기지. 세상에 없던 새 요리를 고안하고 어떤 요리든 이해하고... 있는.

(1.3/21) ?? (끼어들며) 뭘 말인지 알겠구!

(1.3/22) ?? (손으로 턱을 쓸며) 알구싶게 만드네, 컴퓨터의 진짜 정체.

(1.3/23) ** (웅변하듯) 근원의 쌈으로 가자. 본질, 원천, 기초, 그런 것들에게로 가자. 나머지들은 다 버리자.

(1.3/24) - (일어나 모두를 돌면서) 컴퓨터의 본질. 이걸 파 보는게 중요할걸!

(1.3/25) ** 어찌면 좁디 좁은 세계. 하지만 다른 모든 세계를 달구고 찢는 힘을 가진 세계!

(1.3/26) ?? (흘겨보며) 방구 애 왜 이렇게 신나하냐. 원.

(1.3/27) - (잔디속에 숨은 토끼풀꽃을 가까이 바라보며) 넓은 세계는 늘 좁은 입구를 통해서 펼쳐져. 보편은 특수를 통해서만 열린다구.

(1.3/28) ?? 와우.

(1.3/29) ?? (결심한 듯) 좋았어. 쿨! (새떼가 강물을 차고 올라 사자 줄을 지어 난다)

4

마치면서

- (4.0/1) ?? (옥상 별채, 평평 눈이 내리는 창 밖) (활활타는 벽난로 주변으로 모여 앉은 넷) 지난 봄부터 우리 넷이 파해친 컴퓨터 창세기가 그럴듯했구!
- (4.0/2) – 컴퓨터 원조 논문에 담긴 원천 설계도가 나오는 과정을 다 파헤쳐 본거지? 이상한 거 하나도 남기지않고. 튜링이 그걸 써 내려가던 마음속까지도 따라가 보면서.
- (4.0/3) ?? 그 나온 과정이 참 아이러니구. 컴퓨터 청사진이 나온게. 검은 백조야. 예상 못한 결과잖아.
- (4.0/4) – 맞아. 수학자들의 꿈을 깨버린 증명. 그 증명을 다른 스타일로 다시 반복하다가 슬쩍 드러난 왕튜링기계, 컴퓨터!
- (4.0/5) ** (창 밖으로 짙은 하얀 하늘을 바라보며) 좌절의 진흙위로 혁명의 설계도가 나오다니. 1936년부터 2136년까지 이어질 디지털 혁명의 설계도!
- (4.0/6) ?? (웃으며) 방구 넌 그럴듯하게 한 마디 하는데는 머 있데니까.
- (4.0/7) ?? (신나서 허리를 세우며) 근데 이제 나, 그 원조 논문 구석구석을 다 알게된거 같어! 궁금했던 거? 모두 클리어! 던!
- (4.0/8) ** (똑같이 허리를 세우며) 솔직히 나도! [컴퓨터과학이 여는 세계]보다 더 쉬웠고. 슬쩍 넘긴데나 빠진데도 잘 채워졌고. 통쾌하도다!
- (4.0/9) ?? 그리구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게 최곤데! 좋은 공부법야. 내 수준을 몇 급수 더 올려주는것 같구. 히히.
- (4.0/10) – (손으로 턱을 괴고) 모두 끝없이 파고들던 질문 덕분야. 가차없던.
- (4.0/11) ?? 고마웠꾸~. 이상한 거, 잘 모르겠는 거, 조금이라도 의심되던 구석. 하나 하나 파고들 때마다 답해준 거.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ㅋㅋ. 최고다 비비!
- (4.0/12) ?? (자기 왼쪽 귀를 당기며) 그리구. 팩션 다큐 얘기도 나쁘지 않았지 않아? 진짜 튜링소년이 옆에서 모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리는 것 같더라구.

(4.0/13) ** (엄지와 검지로 왼쪽 콧볼을 잡고) 맞아! 뭔가 잔잔한 미스터리 같으면서도 은근 스릴러 같았어. 튜링의 머리속을 훑쳐보는 느낌?

(4.0/14) ?? 이런걸 “팩션다큐”라 그래?

(4.0/15) - 팩트랑 픽션을 섞은거야. 사실에 상상을 살짝 더한 거지.

(4.0/16) ?? 아하. 어쨌든 컴퓨터의 근원, 기초, 원천 아이디어, 뭐 이런걸 배운게 좀 뿌듯하구. 보약먹은 건가? 좀 든든한 기분? ㅋㅋㅋ.

(4.0/17) - (눈이 초롱초롱해지며) 히 다행이네!

(4.0/18) ?? (혀를 살짝 내밀며) 그리구. 컴퓨터 창세기를 일군 내용을 듣다보니, 색다른 공부를 끌고가는 생각의 스타일이랄까 감성이랄까 그런 것들두 은근 몸에 스미는 듯, 하기두 하다는 느낌이 얼핏 스치는 듯, 하기두 하구...

(4.0/19) - 하하하.

(4.0/20) ** (엄지와 검지를 비벼 털며) 오, 스저지 너 이제 큰 공부에 대들 만한 비법을 얻게 된거냐?

(4.0/21) ?? (웃으며) 굴썤... 비법이라기보단, 본질 추적자의 자세랄까?

(4.0/22) ?? (자신감 있는 어투로) 컴퓨터 기술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근본을 아는 나. 이젠 흔들리지 않쿠! ㅋㅋ.

(4.0/23) ** (하늘에 낙서하듯 어지러이 날리는 눈발을 보며) 눈이 부시게 일어나는 컴퓨터 기술의 파도. 휩쓸릴까 두려울땐, 근본을 파라. 내실있는 위로다.

(4.0/24) ** 그제 든든한 뒷배가 되는 거지. 파도에 휩쓸리는게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탈. 혹은 더 높이 일으킬. 아니면 그런 물질을 내는 힘이 될거야.

(4.0/25) - (손으로 가리키며) 바로 그거야.

(4.0/26) ?? 방구 너 오랜만에 멋져!

(4.0/27) - (조용히 웃으며) 너희랑 같이한 시간이 정말 최고였어.

(4.0/28) ?? 우리가 갔던 데두 다 생각나구. 한강공원, 체육관, 여름에 아침가리골 트래킹 코스. 여름이 다 갈 때 쯤였지? 제주도 가시리 트레일런 대회, 유채꽃플라자 숙소, 거기 로비, 거기 세미나실...

(4.0/29) ** 그 앞에 드넓은 풀밭 생각나지? 맨발로 걷던? 그리고 가을에 파리에서, 뽕떼옹 뒤 카페, 고 아래 파리 고등사범학교 캠퍼스, 강의실, 거기 중앙정원, 주변 거리. 그리고 승보사찰 송광사! 여기도 인상적이었지.

(4.0/30) – 다 다시 가보고 싶다. 우리 그 때 얘기했던 대목도 추억하면서. 한 동안 못잊을거 같애 난.

(4.0/31) ?? (만족스럽게) 하아아아... 그니까. 암튼, 모두 고맙구! (날리다가 결국 소복이 쌓이는 눈)
(온기가 남은 찻잔을 들고 모두가 건배!)

덧붙이는 설명